

지역 대학가 총장선거 직선제 목소리 높다

전남대 이달말께 교수 총투표 거쳐 최종안 결정키로

조선대 교수회 17일 총회...직선제 결의안 이사회 전달

학장 선거 잇단 잡음도

전남대와 조선대가 선거의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차기 총장 선거를 앞두고 교수들을 중심으로 '총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대학가가 들쭉거리고 있어서다. 단과대학 학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는 잡음도 잇따르고 있다.

◇조선대 교수들, '총장 직선제로 뽑자' 결의=조선대 교수평의회(의장 이대용 교수)는 17일 오후 4시 학교 해오름관에서 교수평의회 총회를 열고 "직선제로 총장을 뽑아야 한다"는 대의원회 결의안을 추진해 이사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교수평의회는 조선대 교수들의 입장을 대변

하는 기구로, 대학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총장 간선제 선출'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대학 이사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선대 이사회는 오는 24일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조선대 교수평의회는 최근 대의원회를 열고 총장을 직선제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고 결의하는 한편, 차기 총장 선출에 차질이 없도록 이사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학 안팎에서는 조선대 이사회가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선출' 방침과 국가 지원사업 불이익 등을 내세워 교수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거 전례 등을 감안,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교 70주년을 맞는 대학 위상에도 불구하고, 선출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이사회 기능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이사회 불신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남대 교수회, 총투표로 직선제 여부 결정=전남대 교수회(회장 김영철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지난 9일 '총장선출제도 및 교수회 위상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2개의 총장 선출 방식을 공개했다.

교수회는 특히 기존 교수들 위주의 투표 방식을 벗어나 직원·학생 뿐 아니라 조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 총장 직선제 방안을 내놓았다. 1차 정책평가단과 2차 정책평가단으로 나눠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간선제 선출 방식도 공개했다. 교수

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2개의 직·간선제 선출 방식을 최종 확정, 이달 말께 교수 총투표를 거쳐 1개의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대학 안팎에서는 직선제 총장 선출 방식이 정부의 국립대 총장 간선제 선출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결론지어질 지 집중되고 있다.

◇학장 선임 과정에서 잡음도=조선대는 최근 체육대 학장으로 단과대학 추천자 대신 직무대리를 임명했다. 학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1인 2표제를 통한 추천 방식을 놓고 교수들간 '체육대학장 후보자 선출 무효', '정당한 절차'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이뤄진 조치라는 게 대학측 설명이다. 전남대에도 예술대 학장 선임과 관련, 일부 교수들이 ▲교수들 중지 미반영 ▲학부 순환체계 미준수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대학측이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5·18 돌탑에 새기는 추모의 마음 11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 옛 묘역에서 '5·18 추모돌탑 쌓기'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돌탑에 추모글을 남기고 있다. 5·18 추모돌탑은 지난 1993년 5·18민주화운동 13주기를 맞아 시민참여형 행사로 진행됐지만 참배객들의 꾸준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완성하지 못했다가 올해 재추진하고 있다. 돌탑쌓기는 이날 1단계 행사에 이어 다음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 현장에서 수집한 5·18 마지막 항쟁자 옛 전남도청의 벽돌 200~300장을 활용해 기단부를 쌓을 예정이다. 3단계는 5·18 주간에 묘역을 찾는 국내외 참배객들이 가져온 돌들로 탑을 완성할 계획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시민 57% "학교 5·18교육 소홀"

전남대 5·18연구소 설문...교사·학생 무관심 지적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국정)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축소 기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공교육(학교)에서조차 5·18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단체·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가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56.7%가 '공교육에서 5·18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5·18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8.3%(잘 이뤄지고 있다) 7.5%,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0.8%에 그쳤다. 5·18 교육은 전국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그렇다' 5.1%, '매우 그렇다' 0.4% 등 긍정적인 답변은 5.5%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 답변은 61.6%로 높았다.

현재 5·18 교육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사의 자질 ▲교재 ▲학생들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 5·18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교재 내용도 진부하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교사들의 5·18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39.2%가

"신창IC 진·출입로 안전운전 하세요"

21일부터 2차선 확장공사

출·퇴근길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광주 제2순환도로 신창IC 진·출입로 확장 공사(광주일보 2015년 12월3일자 7면)가 다음 주 착공됨에 따라 이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의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개 차선으로 운영된 광산구 신창IC 진·출입로를 2개 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오는 21일께 착공해 4월말 완공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신창→북구 진출로 200m, 북구→신창 진입로 145m이며, 공사가 마무리 되면 폭이 7m로 확장돼 각각 3.5m 차선 2개로 운영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4월말 완공하기로 했다"며 "교통혼잡 및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우회로 통행과 양보운전 등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등의했고, 5·18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에 있어서도 41.1%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5·18 배움에 대해서는 응답자 66.1%가 '학생들이 5·18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5·18 교재(5·18기념재단 제작 인정교과서)에 대해서도 '충분히 개발돼 있다'(그렇지 않다 59.4%, 그렇다 10%), '내용이 진부하고 상투적이다'(그렇다 39.2%, 그렇지 않다 14.8%)로 조사돼 교재를 참신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5 달뜨기 10:25
해질 18:39 달지기 --:--

아직은 쌀쌀해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0/11	보성	0/11	보성	0/11
목포	0/8	순천	0/8	순천	0/8
여수	4/11	영광	4/11	영광	4/11
나주	-2/12	진도	-2/12	진도	-2/12
완도	2/12	전주	2/12	전주	2/12
구례	-2/12	군산	-2/12	군산	-2/12
강진	0/11	남원	0/11	남원	0/11
해남	-1/11	홍산도	-1/11	홍산도	-1/11
장성	-2/11				



비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부	북~북동	북서~북	북서~북	북서~북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남해
서부	서부	서부	서부	서부	서부
면바다(서)	면바다(서)	면바다(서)	면바다(서)	면바다(서)	면바다(서)

생활지수

관심	식중독
보통	자외선
낮음	피부질환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6:04	11:03
	18:13	23:19
여수	밀물	썰물
	00:36	06:32
	12:46	18:54

주간 날씨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1/15	2/16	3/15	10/15	7/16	7/17	7/17

존재 없는 쌍둥이에 취학통지서·초등생은 미취학 분류

미취학 아동 관리 엉망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적·행정적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에게 취학통지서가 배부되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도 6년째 미취학 학생으로 분류됐다. 이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13일 경찰과 교육당국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는 취학을 앞둔 쌍둥이 자매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하면서 아이들이 해당 가구에 살지 않는 것을 알게 됐고 학교에도 나오지 않아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쌍둥이 어머니 A(여·46)씨가 서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했는데, A씨가 "선교사를 통해 입양 보냈다"는 등 석연치 않은 답을 하자 범죄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다자녀 양육수당 혜택을 받으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관련해 2014년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A씨가 민사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청구 등을 통해 아이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한 잘못된 주민등록 기록이 없어지지 않아 쌍둥이에게 취학통지서가 발급된

것이다. 6년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 전남의 미취학 아동은 출생신고가 중복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학 학생 B군은 어머니 C(여·35)씨가 지난 2004년 낳아 'D'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다가 개인 사정으로 6개월 뒤 지인의 연고지인 전남의 한 시골 마을에 B군을 두고 갔다. B군을 맡게 된 인근 보호시설과 마을 주민들은 B군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 출생신고를 했다. 3개월 뒤 어머니 C씨가 다시 마을에 찾아와 아들을 데려갔고, 이후 B군은 어머니가 최초로 신고했던 호적인 D군으로 살았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B군의 이름으로 초등학교 입학통지서가 배부됐지만 해당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은 미취학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방지하면서, 결국 B군은 사실상 세상에 존재하지만 사라진 아이가 돼버렸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열살 짜리 아들을 3년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교육적 방임)로 E(여·29)씨를 검거했다. E씨는 식당일을 하며 힘겹게 생계를 꾸렸고, 아들은 식당에 맡겨져나 원룸에 방치해 제대로 된 교육조차 해주지 않았다. /김형호기자 khh@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세요!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촌면로 1986-34 (면적 225-지)

제주아이브

동나무 독채형객실	편안드롭송을 직접 수입하여 장식정식공간 프라이빗한 동나무 독채형객실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골프투어 최치지	레이크힐스cc, 우리동cc, 롯데스카이힐스cc, 핀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등반 최치지	한라산 명실코스 15분, 성만와 차량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치한 입차, 차량이동시간임
쇼핑의 편리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 차량이동시간임
엘리베이터먼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적용(단, 성수기·준성수기·연휴기간 제외)
렌트카 90% 할인	별라 15명 미니투어를 1박 + k5 or YF소나타 24시간 79,900원!! (비수기 주중 기준)
단체수요 시설완비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I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준비,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브를 준비, 조·중·석식가능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